

특례시 지정 전주시민의 합성 '쩌렁쩌렁'

시, K리그 전북현대 홈경기서 '전주시의 날' 개최 4일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갖고 서명 돌입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전주시민들의 합성이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전주시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홈경기에서 전주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전북현대의 우승을 기원하는 '특례시 지정 촉구, 전주시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민들이 축구를 매개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주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한 시민의 열원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경기장에서는 전광판에 전주 특례시 관련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전주시민과 축구팬이 함께 전주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한 경기 시작전에는 전주시민을 대표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정우민 전주시청년회장단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이 특례시 지정을 기원하는 시축 행사에 참

여했다.

이와 관련,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데 이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차관위원장이 최근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오는 4일에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된 서명부에 시민들이 직접 서명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향후 개발될 앱을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의 전북현대는 축구팬들의 열정과 전북현대팀



전주시는 지난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 K리그 홈경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전북현대의 우승을 기원하는 '특례시 지정 촉구, 전주시의 날'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불굴의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함께 이뤄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좋은 전주, 더 자랑스러운 전주를 함께 만

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프타임에는 전주시 축구 발전에 힘써 온 전북현대 백승권 단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전주시 홍보대사인 '라스트포원'의 비보잉 공연과 '전주시드론축구단'의 드론 축구 시연 행사도 펼쳐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범법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8일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전력이 많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석훈 기자

출소 8일만에 식당서 난동부린 60대 덩미

출소한지 8일 만에 또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경 전주시 진북동 한 음식점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속옷만 입은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범법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8일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전력이 많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석훈 기자

공사자재 차량에 신고 달아난 50대 붙잡혀

공사자재를 화물차량에 신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경 무주군내 한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화물차량에 신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사회가치연대기금 선점 사회적 경제 키운다

전주시, 활성화 위원 출범회의 조례 개정 등 운영 기반 마련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자금수요자에게 저리대 자금을 대어해주는 '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된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제3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 18명은 앞으로 2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현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업실장이 참석해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민간주도로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회의를 열었다.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으로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 및 사회가치 투자 확대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금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014년 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회의를 추진해 왔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제3기 위원들이 우리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애정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전주형 사회적경제가 전주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행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금융권이 후반기 관으로 참여해 향후 5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 공모 신청 주민 공청회

전주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응할 전주형 도시재생 전략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29일 전주시도시혁신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방침에 맞춰 전주시가 추진해온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과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회,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전북문화거점권역(원도심, TB, 완산·서학, 노송, 삼천·효자) △광역교류거점권역(컨벤션, 전주역, 금암·인후, 진북) △첨단산업육성거점권역(산단·준공업, 추천대, 북전주역)의 12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활성화 계획(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세계 최초 개발 전주시 드론축구 세계화 '첫 발'

드론축구협회 이사회 개최 운영규정 제정 등 논의 이뤄져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제1기 이사회를 열고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 세계화를 위한 첫 발을 뒀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양균의 캄탁종합기술원장)는 지난 29일 전주시청 8층에서 협회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정식허가·등록되면서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가 세계인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드론축구 관련 주요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대한드론축구협회 조직 운영규정 제정(안) △지회 및 지부 운영지침 제정(안) △회원 및 회비 운영지침 제정(안) 등 향후 협회 사무국 운영계획 및 드론축구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 관계자는 "드론축구와 대한드론축구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회 임원 및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전주



(사)대한드론축구협회는 지난 29일 전주시청 8층에서 협회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시의 드론메카도시 구축과 2025년 드론월드컵 개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드론축

구 세계화에 전주시민들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내일부터 전주한옥마을 식품위생업소 특별지도·점검

전주시가 오는 5월 개막하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과 봄나들이철을 앞두고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전주한옥마

을 내 식품위생업소 18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유류기인 결과 제품 사용 여부 △중조사 건강진단 및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장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상태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사업장 단속 나서

대형마켓·제과점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점포와 규모 165㎡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위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회용품 관련 사용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법률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완산·덕진구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대상 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결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물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현장계도를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여부도 지속 점검해 오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은 이제 잠깐의 편리함이 아닌 환경 보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익산시 전통킥보드 흡진 30대 불구속 입건

공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통킥보드를 흡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32)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6시 21분 경 익산시 동서로 한 식당 옆 공터에 세워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전통킥보드를 흡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신용카드 절도 40대 검거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9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마트에서 카트 위에 올려 둔 신용카드를 훔친 뒤, 병원진료비 등으로 21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트 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주점 카운터에서 휴대전화 훔쳐 달아난 50대 검거

주점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A모(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한 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킨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

구독·광고문의 288-9700